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심재*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50 Victoneta Avenue, Potrero Malabon</p> <p>마닐라 말라본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초, 중, 고, 대학교가 모여 있어 꽤 큰 편이며 시설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1대1 수업 교실은 많이 작는데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곳은 좀 답답합니다. 가톨릭 학교라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하며, 선생님들도 매우 편하게 대해주셔서 금방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p>
수업	<p>대그룹 수업 3개, 소그룹 수업 2개, 1:1수업 3개를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반을 나눠줍니다. 시간표가 다 작성되어 나와서 쉬는 시간은 랜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총 8교시 수업을 하며, 2교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1교시는 8시부터 시작되며, 가장 늦은 수업은 6시 25분에 끝이 납니다. 대그룹 수업은 보통 10~12명 정도가 같이 들었습니다. 토익 스피킹과 리스닝 그리고 미디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토익 스피킹 시간에는 말그대로 토익 스피킹 시험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연습합니다. 리스닝 시간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듣기를 배우고, 미디어 시간에는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 배웁니다. 소그룹 수업은 자신의 대그룹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그룹 시간에는 액티비티한 게임이나 활동, 토론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그룹 시간이 가장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1:1 수업시간은 말 그대로 선생님과 1:1 과외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으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남의 눈치보지 않고 바로 알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과제는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영어로 에세이를 2개 써야하고, 매주 보는 단어시험, 스피킹 시험, 쓰기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p>
Activity	<p>파견 된 첫 주 주말에 민도르 섬에 다녀왔습니다. 2박 3일로 진행되었으며, 추가 비용은 학교에서 전부 지원해주었습니다. 민도르 섬은 한국의 해수욕장과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딱히 정해진 일정 없이 자유롭게</p>

	<p>노시면 됩니다. 가면 제트스키, 플라잉 피쉬 등의 수상 액티비티 활동을 한국보다 비교적 싼 가격에 즐길 수 있으므로 돈을 좀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p> <p>2주차 금요일에 자신의 대그룹 사람들과 선생님을 포함하여 마닐라 투어를 갔다왔습니다. 마닐라의 리잘 파크 같은 유명한 곳들을 같이 돌아다니며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것의 추가 비용 또한 학교에서 500페소 지원받았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햇볕이 강하므로 우산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합니다. 그리고 비도 자주 내립니다. 그러니 항상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를 넣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햇볕이 강할 때는 양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안전	먼저 기숙사나 학교에는 가드들이 24시간 내내 교대 근무를 서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밖에 돌아다닐 때도 정말 외진 곳(한국에서도 이곳은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만 가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숙소	2인1실로 생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숙소에 만족합니다. 방은 좁지만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매일 청소를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침대시트와 이불, 베게도 바꿔주셔서 좋습니다. 다만 수압이 좀 약해 화장실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금시간은 10시까지이며, 기숙사 내에서 음주나 흡연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사	<p>학교식당(<input type="radio"/>) 홈스테이(<input type="radio"/>) 외부식당(<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식당은 한식이 나옵니다. 2주동안 다른 음식이 나오고 남은 2주동안은 전에 나왔던 음식이 로테이션 됩니다. 시원한 국물과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 식당을 자주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식사 시간 때 비교적 빨리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p>
교통	<p>통학은 기숙사 바로 앞에 수업듣는 교실들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 나갈 곳이 있다면, 우버나 그랩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택시를 타고 다니시면 수월합니다. 일종의 콜택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버나 그랩으로 택시를 부르면 그 부른 곳으로 10분안에 택시가 옵니다.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500,000	
예치금	200,000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꼭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준비하세요. 그 곳에서 돈을 쓰다보면 나중에 돈이 모자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생님들 선물을 준비해가시면 좋습니다. 그 곳에는 막상 사드릴 것도 많이 없고 나중에 선생님들과도 정이 많이 들어 선물을 꼭 드리고 싶게 됩니다. 환전은 한국에서 달러로 바꿔가서 필리핀에서 페소로 바꾸시면 됩니다. 처음에 환전소에 같이 데려다 주며, 나중에는 쉽게 언제든지 혼자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할 때 짐을 최대한 줄여서 가세요. 나중에 돌아올 때 기념품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사면 상당히 고생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4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솔직히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할 때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발음, 단어 부족, 문법 오류 등 자신이 영어로 말하다 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능력도 매우 향상됩니다. 하루종일 영어만 듣다 보니 나중에는 좀 편안하게 들립니다.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우리 또래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라 말도 잘 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저의 말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회화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이나 단어 등을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 때는 좀 더 유창하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토익학원도 다닐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어에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필리핀 친구들과..</p>	<p>민도르 섬에서 먹은 해산물</p>
	
<p>민도르 섬</p>	<p>민도르 섬</p>
	
<p>베니스몰</p>	<p>마닐라투어</p>